

News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연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올해 하반기 취약층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가 경정예산과 동원 가능 정책 모두 투입 예정
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

주담대 최고금리 6%대로 하향

머니투데이

우리은행, 금리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연 5.48~7.16%에서 5.47~6.26%로 하향 조정...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최고 금리를 전년대비 1.3%p 낮춰...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정부와 여당의 잇단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 다만 시중은행 측은 실제 대출 받는 고객들의 체감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고 견해

금리 뛰는데, 변동금리 비중 77.3%...8년 1개월래 최고

데일리안

4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7.3%로 집계...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대비 11.7%p 상승
내달 한은의 빅스텝 진행되면 대출차주의 이자부담 증가 예상... 미래를 보고 1%p이상이나 비싼 고정금리를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10억 넘는 '고액예금' 사상 최대...770兆 은행에 몰렸다

MTN

작년 은행에 10억원 이상 고액예금이 사상 최대인 770조원 몰려... 금리인상기 대비 선제적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해두려는 포석으로 해석
회사채금리 부담이 커지는 점도 고려... 법인들의 직접 자금조달 노력이 컸던 영향... 반면 개인 중심의 1억원 이하 예금 상승세는 주춤

'위드 코로나'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70%대 '양호'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달까지 누적 70%대... 1월부터 5월까지의 11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0.4%
메리츠화재는 1년전보다 1.7%p 낮아지고, MG손해보험도 2.9%p 하락... 이동 증가에도 사고율이 낮아진 점 때문... 다만 장마철 시작 및 휴가철 앞두고 관련 대비 중

보험업계, 4세대 실손 반값 할인 올해까지 연장한다

조선비즈

생명·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들과 4세대 실손보험 할인 연장 여부를 논의 중... 삼성생명 등 선제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 할인 연장에 나설 예정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할인 정책을 연장할 것으로 강력히 주문... 업계는 기존 구세대 보험료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금융투자' 속속 떴는 증권사들...이유는

뉴시스

하나금융투자, 24일 기준 하나금융투자에서 하나증권으로 사명 변경하는 안건 의결... 신한금융투자도 사명 변경 검토 중
증권보다는 금융투자가 더 넓어진 업무영역을 포괄하는 의미이나, 대중적 인식에서 금융투자가 자리잡지 못해 증권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는 추세

외국인 '셀 코리아' 언제까지...지나주도 1조원 넘게 던졌다

조선비즈

외국인,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1조 2,953억원 순매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5,998억원 순매도한 가운데 코스닥시장에서 3,407억원 순매수
개인은 1조 4,306억원 순매도... 기관은 금융투자업자 중심으로 2조 7,897억원 순매수... 수출 의존도 높은 경제구조,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이 맞물리며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